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4. Vol. 87 No. 2 pp. 45~98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에 대한 이상형적 이론구성

송인하 · 임춘희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에 대한 이상형적 이론구성

송인하* · 임춘희**

초 록

본 연구는 성 평등가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성 평등 실천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속성을 갖는 성 평등한 동거관계의 형성과 조건에 대해 이상형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론적 구성을 시도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의 발생 원인이 전통적 결혼의 불안정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는 성 평등 이념이 체화되어 행위자를 규율하는 에토스를 가진 개인 간의 성애적 결합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성 평등한 동거의 형성과 그 결과로서 성 평등의 실현은 이념적이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적 요소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속성을 가진 동거가족이 존속하는 조건은 가사분담에서의 공평원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그리고 전통적 결혼제도의 거부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구성물은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인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동거, 성 평등, 가사분담, 젠더 이데올로기, 가부장적 이념, 동거지속 공동체, 이상형

I. 서 론

혼전동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에서는 결혼 전 단계로 설명되거나 전통적 결혼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960년 이전만 해도 산업화된 국가에서 동거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부부중심의 핵가족형태의 결합만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 전북대 사회학과 강사(singason777@gmail.com).

** 교신저자, 군산대 아동가족학과 교수(chlim@kunsan.ac.kr).

되었다. 그러나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비판과 부정이 1960년대에 북미와 유럽에서 히피문화의 확산과 생태운동의 출현 등으로 나타났는데 전자는 성적 자유를 그리고 후자는 산업화된 생산체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급진적 페미니즘이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이혼과 혼전동거의 증가는 전통적 가족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 가족이념은 성 역할 차이를 심화시켰으며 이것이 결국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젠더 레짐은 가부장적 가족이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 볼 때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동양사회에서 가부장적 지배구조는 더욱 뚜렷하게 발견된다. 서양사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성 역할에 따른 분업체계를 바탕으로 남성은 생산노동에 그리고 여성은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전형적이었다. 그런데 동양사회에서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성 역할 분업이 심화되는 현상이 과거 서양사회에 비해 뚜렷하지 않았다. 피상적으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 여성도 생산노동 또는 가계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서양사회에서 성 역할 분업체계를 해체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되었던 반면에 동양사회에서 또는 산업화가 뒤늦게 진전되어 왔던 사회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성 역할 분업체계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여성의 생산노동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명의 발전사적인 차이는 그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가치관의 혼재에 따른 적응 행위의 혼란 또는 규범적 혼란을 심화시키게 된다. 즉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공동체적 가족이념, 가부장적 가족이념 그리고 개인화된 가족이념 등이 공존하면서 개인은 선택에 따른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가족이념이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공존하고 있고, 서양사회에서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화된 가족체제로 이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달리 동양사회는 어느 하나의 가족이념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보다는 동양사회에서 가족이념의 혼재에 따른 규범적 혼란을 더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성애적으로 친밀한 관계로서 동거의 증가는 서양사회에

서는 자연스럽거나 전통적 결혼의 대안으로서 수용되고 있지만 동양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제재도 존재한다. 물론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기까지 가부장적 핵가족이 중심이었던 서양사회에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서양사회는 성 역할 분업체계의 근간을 이루었던 가부장적 가족이념이 젠더 혁명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젠더 평등적 가족이념으로 이행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어떠한 혁명적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고 새로운 가족이념을 받아들이는데 사회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에 서구로부터 전파된 젠더평등 가족이념이 가부장적 가족이념과 경쟁하면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서구사회에서 동거에 대한 규범적 제재가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서구사회에서 동거가족이 일반적인 결혼형태로 자리 잡는데 걸린 시간은 약 30년 밖에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가족제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 체계로 인식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젠더혁명에 의하여 촉진되었던 것이다. 젠더 혁명의 요지가 기성체제에 대한 불신과 부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동거의 증가는 기성의 가족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 또는 기존 가족제도가 매우 불안정한 체계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성의 가족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혼의 증가와 그에 따른 가족해체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양쪽 부모의 훈육으로 자라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화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한 부모 가정이나 부모의 재혼에 의해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되면서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부모의 이혼이나 한 부모 가정에서의 경험은 기존의 가족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고 결국 어른으로 성장해도 기성의 결혼제도를 자신을 위한 안정적인 성애결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유아기나 성장기에서 겪은 상처를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결과로 인식하게 되면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이혼과 같은 사건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애결합으로서 동거이다. 그들이 보기에 동거가 기성의 가족제도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성애결합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것으로 이행은 빠르게 확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거쳐 전통적 가족제도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동거보다 발전된 체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기존의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고 그러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동거에서 기존의 결혼제도로 이행할 가망성이 높은 것이다. 거꾸로 동거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약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수록 동거에서 전통적 결혼제도로 이행할 개연성은 낮으며 동거는 하나의 제도로서 발전하게 된다. 요컨대 가부장적 가족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동거관계가 하나의 정상적인 제도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동거구성원이 동거관계에 대한 정당성을 갖는 것이며 제도화를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여기서 동거관계에 대한 정당성은 무엇보다 기존의 가족제도의 불안정성이 젠더 불평등에서 연유되었다는 당사자의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행위자에게 동거는 기존의 가족제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거나 극복하려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으로 발견되고 그들은 젠더 평등적 일상생활을 경험함으로써 성애결합의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기존 가족제도의 불안정 요소로서 젠더 불평등이 해소되고 젠더 평등이 실천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동거가족은 지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동거¹⁾를 결혼과 구분하여 역사적인 또는 개성적인 현상으로서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기성의 결혼제도에 편입되지 않거나 결혼 전 일시적인 성애결합으로 설명함으로써 그것만의 독특한 특징을 부각시키는데 실패하였다.

1) 현실세계에서 동거는 매우 다양한 형태나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성의 결혼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이성애적 결합관계로 한정한다. 이러한 결합관계는 기성의 결혼제도로 편입되면서 그것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기성의 결혼제도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성을 갖는 동거공동체라고 잠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지속성의 문제는 동거관계에 있는 개인들의 생활태도 및 에토스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뒤에서 밝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에 대해 성 평등의 관점에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이상형적 이론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서구사회에서의 동거의 증가나 비서구사회에서 동거의 증가가 우연히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행위자의 전통적 가족의 결혼불안정에 대한 인식²⁾과 그에 따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거지속공동체를 선택하려는 행위자의 합리성³⁾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과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가부장적 가족이념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성 평등을 유토피아로 하는 동거관계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고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이 시대에 독특한 사회적 행위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 결혼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동거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이상형적 이론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동거현상이 대대적으로 나타난 배경에 대해 가부장적 가족의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에 있다는 관점에서 성 평등 동거관계의 등장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의 존재조건을 기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 평등 동거관계가 경험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가부장적 요소가 남아있는 전통적 가족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성 평등 동거공동체에 관한 이상형적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서유럽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가치관이 확대되었던 반면에 동유럽지역의 사회주의체제 하의 국가들은 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Možý and Rabušc, 1999; Sobotka, Zeman, & Kantorová, 2003 재인용). 한편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고 개인의 자율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서유럽과 같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규범이 여성에게 기존의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나 불순종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은 물론 동거의 증가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Sobotka, Zeman, & Kantorová, 2003). 한편 페미니즘의 확산은 여성에게 여성의 폄하와 젠더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가부장제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기성의 결혼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Ferree, 1990). 좀 더 구체적으로 Elizabeth(1997)의 연구에서는 동거관계에 있는 개인들은 동거를 기성의 결혼제도에 대한 공공연한 저항(cohabitation as 'marriage resistance')이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기성의 결혼제도에 편입됨으로써 여성이 입게 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거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합리성.

Ⅱ.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동거관계 이론 구성의 필요성

본 논문은 가부장적 가족에 대한 불신 또는 그것의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성 평등 동거관계가 발생된다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거의 설명요인으로 동거에 대한 행위자의 동기와 주관적 인식을 논리적으로 결합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마 많은 선행연구들이 유럽과 북미의 정부통계자료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자의 설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태도에 관한 설문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논리적 체계가 복잡한 동거현상을 해명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는데 있는 것 같다. 실증적 연구는 대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경험적 자료를 분류하고 그 내용을 체계화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동거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여 답하도록 하고 그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중요한 현상으로 취급된다. 응답비율을 보면 경제적 문제나 생활 편의성에 대한 욕구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경우⁵⁾가 가장 많은데 그것이 동거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Sassler, 2004). 그런데 문제는 최고 비율로 나타나는 동거의 동기가 동거 현상의 본질로 부각되면 일반인은 물론 연구자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로 여기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여타의 동거동기에 대한 탐색은 멈추게 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마치 인간의 행위에서 전통적 행위나 무의식적 행위가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행위의 본질이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오류를 범

4) 동거가 매우 일반적인 성애결합으로 존재하는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그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고 선행연구들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동거관계가 드물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동거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일본을 제외한 두 나라에서는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5) 조사 연구마다 동거의 동기에 대한 비율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 어떤 연구에서는 경제적 편의성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Huang, Penelope M., Pamela J. Smock, Wendy D. Manning, and Cara A. Bergstrom-Lynch, 2011; Sassler, 2004)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두 번째 비율을 나타낸다(Sweet & Bumpass, 1992).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험적 연구에서 경제적 요소가 동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동거동기가 경제적 욕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적 현상’으로 설명되고 그것만이 본질로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면 모든 현상은 경제적 현상이 아닌 게 없을 것이고 경제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성애적 친밀성의 경우 경제적 현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관점일 수 있다. 동거는 경제적으로 제약되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종교적으로 제약되는 현상이 되기도 한다.⁶⁾ 어느 곳에서의 동거현상은 종교적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현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외형적으로는 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연구관점이 다른 것은 연구자의 인식관심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동거현상에 대해서도 무수한 연구가 가능하며 경제적 현상으로 보이는 동거관계도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 가능하다.

동거를 결혼하기 전 일시적 관계로 간주하는 선행연구 (Bianchi & Casper, 2000; Brown, 2004; Brown & Booth, 1996; Hiekel & Castro-Martn, 2014)에서 동거와 결혼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이론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동거를 혼전 성애적 결합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구정을 도외시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결혼한 집단과 동거집단(결혼하지 않은 집단)을 실제로 간주하고 비교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그것으로 인한 분석의 한계를 보여준다. Rhoades, Stanley, & Markman(2012)의 연구는 이 점을 잘 드러내는 사례이다. 그들은 동거생활을 지속해주는 기제로서 남녀의 헌신도(dedication)와 도덕적 책임이 따르는 구속성(constraint)이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하였다. 그들은 Stanley and Markman(1992)의 모델을 경

6) 결혼안정성이나 이혼의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적 변수와의 관련성을 많이 탐색하고 있다. 경제적 안정이 결혼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접근은 비유하자면,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나간다’는 속담을 검증이라도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 속담은 오랜 동안 인간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연구자에게 검증하거나 연구할 만한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으로서 경험규칙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의 유용성은 어떤 행위가 그리 되지 않고 달리 나타났는가에 대한 인과적 판단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간 행위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 관습적 행위도 사회학적 연구 대상으로 취택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연구자나 심지어 일반인조차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히 되는 행위가 아니라 ‘왜 보통과 달리 어떤 행위가 발생하였는가’와 같은 의문과 아울러 그러한 독특한 행위에 대한 존재조건과 그 행위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험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었는데 결혼제도에 긍정적인 여성이 동거집단에 서도 헌신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 논의를 더 확장하면 결혼집단과 동거집단은 이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거현상이 사회적 행위의 특별한 유형으로 나타난 조건을 탐색하지 않고 비교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양 집단의 행위자에 대한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다.⁷⁾

많은 선행 연구자들은 이혼과 같은 결혼불안정 때문에 젊은 성인들은 혼전에 상대방을 점검(test)하거나 시험적인(trial) 과정으로서 동거를 선택한다고 말한다(Bumpass & Sweet, 1989; Seltzer, 2004). 그래서 동거 후 결혼한 부부의 결혼안정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동거경험을 거쳐 전통적 가족으로 이행된 경우가 혼전동거경험이 없는 부부보다 이혼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연구자들은 동거의 경험이 이혼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연구자들이 가족이나 동거현상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은 동거를 결혼의 전 단계로서 실험적인 일시적 결합으로 간주하며 전통적 가족으로 이행 후 결혼안정성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가를 기능적으로 설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혼전동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비전통적 가치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 불안정(marital instability)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 관계는 일시적이라고 주장한다(Lillard et al, 1995; Thomson & Colella, 1992; Smock, 2000 재인용).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연 동거관계는 모두 일시적인 결합인가 그리고 동거관계에 있는 커플이 전통적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보다 평등과 비전통적 가족역할을 더 지지하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자에 대해서는 동거가 일시적인 결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기간 지속적인 동거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고 이들은 왜 동거 후 기존의 가족제도로 이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

7)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비교방법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즉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비교는 두 집단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본 연구도 일종의 비교연구를 위한 이론구성을 시도하고 있는데 비교기준이 될 수 있는 이상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게 된다. 그리고 후자는 전통적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람들은 동거를 할 것인가 또는 곧바로 결혼을 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결혼자체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일, 가족, 여가, 경제 그리고 성 역할 등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Clarkberg, Stolzenberg, & Waite, 1995). 결혼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매일 일상생활을 통해 성 불평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가사분담에 있어서 형평성(equity)이다(황수현외 3인, 2014; Wilcox & Nock, 2006). 전통적으로 가족에서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으로 생각되었으나 여성의 직업노동으로 인한 가사노동 시간의 공백을 남성이 대신 메우는 경우에 가사노동은 양성에게 분배된다(John & Shelton, 1997).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dual burden)을 지고 살아간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Hochschild(1989)는 지체된 혁명(stalled revolution)이라고 명명했다. 이와 같은 가사분담의 비율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개인의 신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성 평등에 대한 가치인식이 중요하고 그 실천덕목으로는 ‘가사분담에 있어서 공평’이 포함될 수 있다. 성 역할 불공평은 성 평등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여성은 물론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결혼관계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hober, 2013). 이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성 평등 이념을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평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Amato & Booth, 1995; Thorton, 1989).

일본과 같이 임금에 있어서나 정치적인 면에서 성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로 당연시된다. 그러나 가부장적 권위와 문화의 강도는 사회 내에서도 인종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다 광범위하게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사분담의 공평에 대한 인식을 말할 수는 없지만 성 평등이 보다 확산된 나라(egalitarian countries)에서 여성은 개인수준의 특성에 따라 가사분담의 불공평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된다.

미국의 1960년대와 1990년대 기간 동안에 남성의 가사분담은 2배로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보다 두 배나 된다(Bianchi et al., 2000). 소위 성 평등 사회라고 하는 스웨덴과 미국에서도 여성의 가사분담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이다(Batalova and Cohen, 2002; Fuwa,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세대에 비하면 이러한 성 평등 의식의 진전은 놀랄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부부 모두가 일하는 가족(dual-career families)에서조차도 남녀 평등적 가사분담을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은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남편의 배려로 생각하고 감사해야만 했다. 이 상황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가사분담을 요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Risman & Johnson-Sumerford, 1998). 따라서 아내가 남편과 똑같이 생업에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가사분담 비율은 남성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성 역할 불평등은 가치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Batalova & Cohen, 2002).

성 역할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 평등 관계의 실현은 성 평등(gender equality) 가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Deutsch, 1999). 예를 들면 어떤 외적 조건이 영향을 주더라도 가사분담에 있어서 공평의 실현에 중요한 요소는 부부가 성 평등에 대한 가치이념을 얼마나 공고하게 배태하고 있느냐이다. 동거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제로서 가사의 분담을 통한 공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것의 실천 정도에 따라 동거불안정 요인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통적 결혼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공평이 부부관계의 만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거관계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경우 - 그들은 '전통적 결혼제도에 있어서 가사분담의 불공평'을 인식함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 이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의 동거생활에서는 그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Risman & Johnson-Sumerford, 1998). 이러한 성 평등에 대한 믿음을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치관을 통해 그리고 동거생활 과정에서 가사분담의 공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확인하려 들 것이다.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양사회에서는 '가사분담에 있어서의 공평'이 실천되기 어려웠다. 연령질서에 따른 지배관계가 존재하고 부부관계에서조차도 남녀구별의 미덕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생각했

기 때문이다. 남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생각했던 가사노동을 사내대장부가 해서는 안 되는 사소한 일로 인식하였으며, 공손과 순종의 미덕을 겸비한 아내의 손을 거쳐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다. 서양에서 젠더혁명이 시작된 1960년대에 동양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산업사회에 진입한 나라는 없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도 제한적이었다. 그 뒤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일부 국가에서 성 평등 이념이 교육을 통해 확대되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성 불평등적 젠더레짐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출산율이나 이혼율은 유럽과 북미와 맞먹는 수준이었던 반면에 동거비율은 낮았다⁸⁾. 동거현상을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이나 반대급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과 북미의 이혼율과 저 출산율현상에 대한 의미가 동거현상의 발생과 연관되듯이 동양에서의 그것도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한국에서의 저출산율은 동거의 증가가 아니라 미혼 성인의 늦깎이 결혼과 독신가구의 증가 혹은 혼인 적령기에 해당하거나 적령기를 넘기고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자녀(일본에서 소위 ‘기생독신’이라 부름)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거가 관용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에서는 기성 결혼제도의 대안으로서 동거를 많이 하게 되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그것이 제약되는 사회에서는 젊은 성인의 결혼지체와 독신가구의 형성으로 나타난다. 동거현상의 제약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가부장적 가족가치관이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25-29세의 미혼여성 중 동거비율은 1%에 지나지 않는 낮은 수준이며 일본에서 유럽수준의 동거비율에 이르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Suzuki, 2003).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남는다. ① 성 평등이념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공유되는 사회에서조차도 성 불평등 가족이념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② 성 평등이념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실천이나 저항으로서 성 평등이념의 동거관계가 대중적으로 출현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③ 이러한 성 평등 동거가 가부장적 가족제도 또는 전통적 가족제도⁹⁾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이다. 위 세

8) 유럽이나 북미에서 출산율 저하를 동거의 증가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9) 여기서 전통적 가족은 어떤 사회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가족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가지 물음에 대해 해명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동거현상을 연구하는 목표가 될 것이나 여기서는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과 이론구성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동거와 결혼을 제도의 안팎에 각각 존재하는 실재로 생각하고 명확한 개념설정을 회피하는 개념 실재론적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구성 방법은 개념 속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려는 의도 때문에 사회적 행위의 특별한 유형으로서 동거개념을 정의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험세계를 분석하여 외연을 확대하는 실재론적 개념구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상형적 이론구성을 시도하려고 한다. 동거결합의 이상형은 연구자의 논리적 사유의 범위 내에서 그 외연을 극히 제한하고 내포를 확대함으로써 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형적 이론구성을 단순히 유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거연구와 관련된 다음의 연구(Heuveline & Timberlake, 2004)에 대해서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Heuveline & Timberlake(2004)은 동거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기성 가족제도로 이행되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6가지 동거유형으로 구분하고¹⁰⁾

전통적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부장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통적 가족은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며, 가부장적 요소가 일부만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 상징적인 가족이념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의미체계로서 가부장적 가족이념은 약화되고 개인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가족이념의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영향으로 가부장적 가족이념이 강했던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족 및 결혼제도에 그것이 남아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 가족이라 해도 지역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전통적 가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젊은 성인의 동거현상이 전통적 가족에 대한 부정이나 불안정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 가족 개념은 그 사회의 기성세대의 결혼제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 가족은 가부장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 10) 동거를 이질적인 또는 주변부적인(Marginal)동거, 혼전동거(Prelude to marriage),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 단계로서 동거(Stage in the marriage process), 독신의 대안으로서 동거(Alternative to single), 결혼의 대안으로서 동거(Alternative to marriage), 결혼과 차별성을 갖지 않는 동거(Indistinguishable from marriage)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Mynarska & Matysiak(2010)는 Kathleen Kiernan (2002)과 Prinz (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4단계의 동거확산 모델을 정리하였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발전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① 비혼 동거(Non-marital cohabitation)가 드물어서 그 사회에서 일탈이나

이것을 가리켜 ‘동거의 이상형(Ideal Types of Cohabitation)’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유형들을 미국을 포함한 17개 국가의 경험적 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경험적 지표(indicators)를 제시한 다음 국가 별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설명하였다. Heuveline & Timberlake(2004)의 연구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베버의 연구방법으로서 이상형(Ideal Type)은 단순한 유형분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위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서 보이는 경험적 자료를 기초로 한 유형분류는 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는 한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래야만 그 유형들 속에 실재(reality)가 가능한 모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유형들의 합은 실재를 의미하게 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분류된 몇 가지 유형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의 유형은 독특한 사회적 행위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위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복합적인 내용들이 논리적 연관성을 결여한 채 다른 유형과 구별되고 있다. 둘째, 동거에서 결혼으로 이행(transition from cohabitation to marriage) 가능성(probability)에 초점을 두고 유형을 분류하며 이것으로 17개국의 동거현상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상형(Ideal Type)은 그 현상이 일어날 확률(probability)과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과 경험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것이 현실 적합성을 갖게 될수록(relevant)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형은 실재와 정합적일수록 비교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송인하, 2013) 할 수 있다. 이상형은 오직 개성적인 현상으로 존재하는 실재에 대해 그것을 설명하고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논리적 추상체로 제시되며 경험세계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전제 하에 -가령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 단계로서 동거(Stage in the

아방가르드 행위로 인식하는 단계 ② 동거가 증가하면서 결혼 전 단계로서 실험적 기간으로 인식하는 단계 ③ 동거하는 기간이 증가하고 동거부부가 결혼의 대안(alternative to marriage)으로 인식하는 단계 ④ 동거와 전통적 결혼이 동등하다고(Cohabitation and marriage become equivalent) 인식하는 단계 등이다(Mynarska & Matysiak, 2010). 그런데 이러한 단계의 발전과 이행과정은 유럽사회에서도 지역적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발전단계의 설정이 전통적 결혼과 비교해서 동거비율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에 있기 때문에 개별 행위자의 분석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단지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서 곧바로 결혼하는 비율과 동거비율의 점유 정도를 나타낼 뿐이다.

marriage process)에 대해¹¹⁾ - 상세한 개념구성작업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형적 이론 구성을 시도하고자 한다¹²⁾. 여기서 이상형이란 결코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유형이 아니며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독특한 사회적 현상(평등적 동거)이 어떤 사회적 행위조건에서 연유되었는가를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의 발생 원인이 전통적 결혼의 불안정이나 저항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동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는 성 평등 이념이 체화되어 행위자를 규율하는 에토스를 가진 개인 간의 성애결합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성 평등한 동거의 형성과 그 결과로서 성 평등의 실현은 이념적이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적 요소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지속성을 가진 동거가족이 존속하는 조건은 가사분담에서의 공평원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그리고 전통적 결혼제도의 거부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과 논리적 추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 이를 뒷받침하

11) 비판 대상 논문에서 3번 째 단계를 가리킴.

12) 본 연구에서는 이상형을 가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논리적 모순 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경험세계와의 관련성 등 세 가지 내용에 주목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상형을 가설로서 제시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명증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이상형을 구성하려고 하는 연구자가 어떤 사회적 행위의 유형에 대해 가설형태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가치관계를 탐구하게 되고 그것이 문화적 의의를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형을 가설로 생각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래야만 하나의 사회적 행위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상형적 이론 구성을 버리고 실재에 정합적인 이론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연구대상을 가설의 형태로 제시하며 증명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될 때 학문의 발전이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종의 완결판으로서 개념 실재론적 이론으로부터는 실재가 연역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이상형은 하나의 논리적 구성물로서 시의적인 사태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다만 독특한 사회적 현상이 어떤 사회적 행위조건에서 연유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연구자는 만족한다. 그러므로 이상형을 논리적 모순 없이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구자는 순전히 연구대상을 어느 한 관점에서 기술한다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이상형구성에서 경험적 사례나 자료는 '논리 전개에 있어서 유용한 경우'에만 인용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사회과학의 방법론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념 실재론적(또는 실증주의적) 이론구성의 미비점을 이상형적 이론구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상형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는데 유용한 경험적 사례와 자료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Ⅲ. 가부장적 가족이념과 동거관계의 증가배경

1. 성 불평등과 가부장적 가족이념

가부장적 가족은 인류 역사상 어느 시기나 존재했던 가족제도임에 틀림 없으며 현재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는 가족제도 중 하나이다. 그렇다고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항상 지배적으로 존재했던 가족제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시대에 따라 그 세력의 부침이 있었다. 한국에서 가부장적 가족이념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더욱 지배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전파되지 않았던 고려 말 이전에는 가부장적 가족이념이 상당히 약해서 오히려 남녀평등 사상이 강했다. 남녀차별적인 가부장적 지배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유교이념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의 일이다(최재석, 1983). 고려시대의 남녀 연애향을 보더라도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는, “고려의 서민(庶民)들은 남녀의 혼취(婚娶)에 경솔하게 합하고 부부가 쉽게 헤어지니 전예(典禮)의 법이 아니었다(高麗圖經 卷 19 庶民條)”고 언급되고 있다(류성희, 2010). 이렇듯 어떤 가족제도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였던 것이다(Carlson, 2007). 16세기 서양에서 여성의 지위는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이 기존의 가부장적인 남녀차별을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루터는 성경의 창세기를 근거로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남녀 결합의 은총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칼뱅도 소명론을 가정에 적용하여 여성은 남성가장에 순종하고 그를 보조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호근, 2012).

가부장적 이념은 권력(power), 지위(status) 그리고 역할(role)관계를 포함한다(Millet, 2000; Sugarman & Frankel, 1996). 권력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는데 남성에 의한 폭력(violence)으로 나타나고 (Dutton, 1994; Haj-Yahia, 2003; Hunnicutt, 2009; Ogland, Xu, Bartkowski, & Ogland, 2014; Smith, 1990), 지위는 순종과 같은 관례에 의한 지배 또는 전통적 지배(Weber, 2006)를 가리킨다. 그리고 성 차별적 역할분담이 가부장적 이념을 구성한다(Broverman, Vogel, Broverman, Clarkson, & Rosenkrantz, 1972; Eccles, Jacobs, & Harold, 1990; Manstead & McCulloch, 1981; Thornton & Freedman, 1979).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부장적 가족이념이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 시대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구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족이념이 한국의 그것과 같지 않은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부장적 가족형태 또는 가부장적 가족이념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 전통적 가족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일반인에게 보통이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가부장적 이념이 아직도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 결혼은 유럽과 북미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젊은이에게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Kiernan, 2001).

한편 동양에서 가부장적 가족이념은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기제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국가 별로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1980년대 자유경제정책을 추구해 온 중국에서 교육이나 취업에서 여성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가족경제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가족 내에서 의사결정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여성이 먼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남성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Brownridge, 2006; Tang, 1999; Tang & Lai, 2008). 1989-1990년도에 걸쳐 타이완에서 행해진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산업화와 더불어 확대가족(extended family)은 분가를 통해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분화되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로 구성된 핵가족에 시부모가 들어가 동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부모가 독립적으로 핵가족을 이루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시부모의 가계는 자녀들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질병치료와 같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자녀들이 분담하였다. 이 같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자녀들은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였는데 부모 효도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염두에 둔 자녀의 대처행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유교사상이 내재된 동양의 가부장적 가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Gallin, 1994; Lin, 2005).

한국사회에서 직계가족 중심에서 핵가족화로 인한 부계혈연 중심 가족의 감소와 가족 구성의 다양성,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생계부양자로서 남성의 역할이 감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경제적 지위의 향상 그리고 친밀성에 대한 개인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가부장적 이념이 약화되어 왔다(백진아, 2009).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족이념이 전통 사회보다는 약하지만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많이 있으며 이것들이 사람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게 된다.

다음에서 고부갈등, 자녀에 대한 집착, 부계가족을 중심으로 한 효의 봉사나 의무, 성별분업의 고착화, 섹슈얼리티 통제방식 그리고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부여 등을 통해 가부장적 이념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개인의 행위양식을 규율 하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고부갈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부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2002년 기간 동안 이혼 건수 중 시댁과의 갈등이 이혼원인의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박소영, 2010). 전통적으로 고부갈등은 남성중심의 가족제도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 갈등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족 내 권력체계나 권력불평등을 잘 드러내 보이는 현상이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고부관계는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지배한다. 여기서 권력은 연령질서와 같은 근원적인 권력의 원천에서부터 자원의 분배적 권력 같은 정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래서 고부관계도 차원에 따라 권력적 지배양상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에서 고부관계는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종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과 정반대의 양상을 드러내는 사례가 된다(Vera-Sanso, 1999). 효 사상은 부모에 대한 봉양과 아울러 절대적 복종 이데올로기를 확립시켰다(Gallin, 1994). 한국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고부간 갈등은 가장 첨예한 가족문제였다. 젊은 아내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하게

되면 복종하거나 불공평한 취급을 당해도 참아야만 했다(W.-J. Huang, 2005). 이러한 복종은 결혼한 여성이 부모, 남편 그리고 아들에게 복종하거나 헌신해야 한다는 유교적 이념에서 유래된다.¹³⁾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 중 하나는 남편의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가족에서 모자관계는 부부관계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와 시부모와의 갈등 시 남편은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핵가족이 외형적으로는 부부중심의 가족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서구처럼 부모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부장적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일수록 중재자로서 남편은 시어머니의 편을 들고 가부장적 이념이 약화된 사회에서는 둘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어정쩡한 위치에 서있게 된다. 고부갈등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갈등관계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인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개인적 경험들이 사회화되고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고부 간 갈등은 과거 전통사회보다 오히려 가부장적 가족이념과 성 평등적 가족이념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가부장적 지배가 강한 공동체에서는 위계질서에 의해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 갈등은 오히려 지배관계에서 평등관계로 점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 강도는 조건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서구사회보다는 동양사회에서 고부갈등이 더 심한 이유는 가족주의적이고 유교적 이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박소영, 2010; W.-J. Huang, 2005; Lee & Mjelde-Mossey, 2004).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집착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아닌 확대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부부의 대처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중심의 서양의 핵가족에서 자녀가 성장 후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그

13) 三從之道의 원리를 가리킴. 동양사회에서 시어머니는 가계 자원을 그의 아들과 함께 장악함으로써 며느리를 예측시킬 수 있었다. 그래도 며느리가 이러한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성장해서 자신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똑 같은 권력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김선희, 2001; Gallin, 1994). 이와 같이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 체계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것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해왔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태어나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그 후에는 아들에게 의존하는 존재였다(Chaudhuri, Morash, & Yingling, 2014).

러나 한국의 핵가족에서 부부는 그들의 자녀가 확대가족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 특히 아들인 경우에 친족의 대를 잇는 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을 재생산할 수 있는 인자로서- 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애착을 갖게 된다. 소위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유아의 성비의 불균형은 이러한 측면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부계가족을 중심으로 한 효의 봉사나 의무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시부모의 봉양과 시댁에 대한 다양한 의무가 결혼 이후에 며느리의 중요한 역할이었으나 며느리가 시부모와 분가하여 살고 가부장적 가족이념이 점차 약화되면서 상징적으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시댁에 대한 며느리의 봉사나 의무는 과거처럼 심하지 않으나 여전히 여성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며느리에게 시댁은 항상 봉사해야 할 대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말이다. 그런가 하면 명절 뒤 이혼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이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추석 등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건수가 전월에 비해 평균 11.5% 더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절 스트레스에 따른 이혼소송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이다해, 2014). 한국에서 일년에 두 차례의 명절기간에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받게 된 스트레스에 의해 부부갈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문제가 확대되고 증폭되는 이유는 부계가족 중심의 봉사나 의무가 여성에게 과중하게 실제로 또는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물론 친정과 시댁과의 불공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별분업의 고착화와 관련하여 가부장적 가족이념은 성별분업의 차별논리와 남성부양자 모델을 통해 구체화된다. 경제력을 가진 남성은 가부장의 권위를 갖는 반면에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백진아, 2001, 2007). 한국에서는 서양에 비해 짧은 기간이나마 생계부양자로서 남편과 가사 담당자로서 아내의 성별 역할분리가 생산적인 가족제도로써 산업사회에서 정당화되어 재생산되었으며¹⁴⁾, 아내는 가사노동의 대가로서

14) 서양 선진국은 후발 공업국에서 보다 산업화 과정이 길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서양의 산업화에 비해 압축적으로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서양에서는 오랜 동안 지속되었던 반면에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 장경섭(2009) 참조.

생계비가 충당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며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평생직장의 신화가 무너지고 노동유연성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급성장하였고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섹슈얼리티 통제방식에서의 남녀별 차이와 관련하여 섹슈얼리티의 성차별은 남성의 섹슈얼리티의 양해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비난이 여성의 그것과 다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부장적 가족이념이 강한 사회에서 남성의 혼전 성교나 혼외성교는 양해되는데 반해 여성에 대해서는 규범적 비난을 받는다. 이런 사태에 대해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이 여성과 다르다는 것으로 미화되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성행위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가치관은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 대해서는 성도덕의 문란과 가정생활의 파괴자로 낙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공미혜·구명숙, 2001 재인용). 사생아 문제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근대 가족법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 사생아인지 아닌지가 ‘아버지’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핏줄’ 만을 혈통으로 인정하는 부계 혈연주의는 아버지의 호적에 아이를 등록시키고, 아버지의 성을 쓰는 것으로 ‘정상성’을 획득하였지만 그로부터 배제된 경우에는 어머니가 있더라도 ‘비정상적이고 불온한’ 존재가 되었다. 사생아를 낳은 여성 또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은 여성으로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남자 혈통의 유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통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홍양희, 2013). 결혼에 의한 섹슈얼리티에 건강성을 부여했던 성규범이 사람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동거나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재제가 존재하고 특히 여성에게 관대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섹슈얼리티의 통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부여와 관련하여 어느 사회에서 전통적 결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개인이 전통적 결혼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 시 되는데 그것은 자녀의 출산과 전통적 가족이념의 계승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이다. 역사적으로 남성중심사회에서 부계혈연이 중요시 되면 그것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은 가부장적 가족을 통

해서였다. 혼외자인 경우에는 남성이 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확인시켜 주었을 때만 부계혈연공동체에 귀속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가부장적 가족이념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형식에 따른 귀속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 부계혈연의 계승은 재산이나 제사의 상속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노인들의 재산상속의식 및 태도관련 연구를 보면, 2004년 기준 장남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율이 전체 41.0%에서 2012년 현재 7.8%까지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동 기간 36.7%에서 63.9%로 증가하였는데 성 차별 이념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정읍·김명자, 2001; 김혜경, 2008; 강유진, 2012; 김현식·황선재, 2013; 정경희, 2013; 황선재·김현식, 2014 재인용). 그러나 제사 상속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성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전통적 행위양식을 보이고 있다(김기경·박혜인, 2001). 이것은 재산상속보다는 제사상속이 가부장적 가족이념의 계승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성 불평등은 성별 권력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가계의 운영에 대한 주도권이나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 지배와 종속관계가 고정되거나 그것으로 인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상 그리고 남성에 의한 여성의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남성은 가족의 우두머리였으며 가족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남성 연장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남성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시켰으며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Gilmartin, 1990; Honig & Hershat, 1988; Tang & Lai, 2008 재인용). 유럽이나 북미에서 그리고 근대화된 국가에서 아직도 가족 내 규범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규범으로서 가부장적 가족이념이 남아있다. 남성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 차별적 가사분담, 사회적 규범으로 존재하는 젠더 레짐,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이미지화하는 것, 섹슈얼리티에 대한 젠더 차별성 등은 가족 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별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력에 따른 권력 불균형은 성별화된 역할로 나타났다. 그래서 성차별적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는 가족변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Smock,

2004). 산업화를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핵가족이 성장하게 되자 성 불평등 가족이념은 약해졌다. 더구나 1960년대 이후 기성세대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등장했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성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은 물론 인권문제로 인식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확산되고 젊은 세대에게 성 평등이념은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 따라서 젊은 성인들은 성 불평등과 젠더 레짐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있다고 인식할수록 전통적 결혼제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 사회가 성 불평등에서 성 평등사회로 이행하는(transition) 단계에서는 결혼관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은 결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데 비해 남성의 태도는 모호하다. 남성은 성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며(은기수, 2001) 성차별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보면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지도 모른다. 미혼 남성보다 미혼 여성이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이유는 여성이 결혼으로 감수해야 할 시댁관계나 가사노동에 따른 부담 그리고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이 가부장적 가치에 덜 순응적일 경우 성 불평등 결혼을 기피하고 그 대안으로서 성 평등에 기초한 동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이삼식, 2006). 그런데 성 평등이념을 지닌 이 여성이 같은 성격의 남성 배우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냐는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

2. 전통적 결혼제도의 불안정에 대한 인식과 동거관계의 출현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은 전통적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성 평등 가치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¹⁵⁾ 이러한 가정은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다. 첫째는 동거의 기원을 결혼제도를 포함한 기성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에서 비롯된 1960년대의 반 문화운

15) 동거관계에 있는 부부가 전통적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보다 평등과 비전통적 가족역할을 지지한다고 경험적 조사에서 밝히고 있다(Clarkberg, Stolzenberg, & Waite, 1995; Lye & Waldron, 1997; Thornton et al., 1992, 재인용). 그런데 이상형적 이론구성에서 경험적 자료의 이용 여부는 연구자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경험적 검증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과 둘째는 선행의 경험적 연구에서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은 전통적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성 평등의식이 강하다는 점이다(Greenstein, 1996; Le Bourdais & Lapierre-Adamcyk, 2004). 동거관계가 성 평등이념을 지향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성의 결혼제도의 이념에 대한 반대급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기성의 가족제도에 대한 불신, 불안정, 모순 등을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서 성 평등 동거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¹⁶⁾

이제 잠정적으로 ‘성 평등에 기초한 동거관계’를 동거관계의 전형으로 채택하고 앞으로 이것이 독특한 사회적 유형으로서 나타나게 된 사회적 행위의 조건들을 자세하게 논의함으로써 이상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거와 결혼을 법적 또는 제도적 진입 여부에 따라 나누다면 형식적인 문제로 남게 되어 실질적 합리성이 중요한 관심이 되는 경우에는 의미 없는 구분이 된다. 따라서 동거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동거관계가 기성의 가부장적 가족공동체와 이념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이 동거관계는 단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동거관계는 기성의 결혼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 평등 동거관계와 구별된다. 이 동거관계의 구성원에게 동거는 성 평등 이념의 실천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섹슈얼리티의 접근방법으로서 또는 생활편의성이나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성 평등 동거관계 구성원은 전통적 결혼을 거부하면서 의식적으로 성 평등 동거관계에 들어간다. 결혼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 평등 동거에 들어가며,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이 성 평등 가

16) 여기서 성 평등 동거관계가 여타 형태의 동거관계보다 중요하다거나, 현실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다거나, 본질적인 것으로서 또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성 평등에 기초한 동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자 함이며 이러한 사유구성체가 다른 형태의 동거관계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을 뿐이다.

치관을 지니고 있느냐의 여부이다.¹⁷⁾ 즉 성 평등 동거관계 구성원은 그 실천윤리로서 성 평등 에토스(ethos)를 지니고 있을 가망성이 높은 것이다. 전형적인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가 성 불평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 평등 동거관계 이념은 그 반대급부로 존재하게 되며 성 평등 에토스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성 평등에 기초한 동거관계에 대한 이상형을 가부장적 가족의 이념적 성격과 관련시켜 논리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런 다음 그밖에 다양한 동거의 양상이 성 평등에 기초한 동거관계와 어떻게 차별되며, 다른 가족제도로 이행하게 되는 과정과 그 이유를 밝힘으로써 ‘성 평등 동거관계’가 가부장적 가족의 대척지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성 평등 동거관계의 이념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부장적 가족이념을 수용하지 않는 부부에 의한 성애결합은 성 평등 동거관계의 기초가 된다. 동거관계를 구성하는 부부는 가부장적 가족이념을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가족 이데올로기이며 그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은 가부장적 가족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인식한다.

둘째, 가족공동체 내에서 성 평등을 지향하는 동거의 핵심은 전통적 지배에 대한 거부, 성 역할 분담에서의 공평, 권력적 평형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여기서 전통적 지배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순종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넷째, 성 역할 분담에서의 공평은 성별 분업이 성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동거관계의 부부는 성별 분업을 재생산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제도에 대해 의식적으로 거부(rejection)하려 한다.

다섯째, 호혜적 평등은 권력적 평형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호혜적 불평등 관계는 동거관계 형성을 제약한다.

여섯째, 동거부부는 가부장적 가족의 대안으로서 성 평등 동거관계의 이념의 실천과 유지를 통해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 동거관계 구성원 양자가 성 평등이념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동거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성 평등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제안이나 요청에 의해서 가사분담에 있어서 공평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실행여부는 알 수 없고 다만 동거지속공동체의 조건으로서 양자의 젠더 평등이념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Greenstein(Greenstein, 1996) 참조.

위에서 제시된 것들은 성 평등 동거관계를 그 외의 동거관계와 구분 지을 수 있는 이념적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성 평등의 실천적 성과는 이념적 투쟁에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많은 국가에서 성 평등가치는 고양되었지만 그 실천적 성과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적 가족의 불안정이 성 불평등에 기인된다고 인식하더라도 양성 평등을 위한 이념적 투쟁을 통해 그것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성 평등 동거관계의 지속과 성과는 이념적 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사분담의 공평과 같은 공동체 내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망성이 큰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성 평등이 실천되는 온갖 활동은 성 평등 동거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자에 의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의 실천 또는 젠더 평등의 실현은 가사분담과 같은 성 역할의 공평에 대한 투쟁에서 성취된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부딪게 되는 문제이며, 그것의 실행여부는 눈앞에서 바로 확인된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한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첨예하게 부딪게 되고 때로는 갈등의 정도가 격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그것의 실행여부와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가사분담의 공평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가사분담에 있어서 공평'에 대한 평가는 동거에 있는 양자의 주관적 인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합리성의 추구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수단의 강구도 언제나 공평의 원리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 젠더 평등 동거관계는 전통적 가족의 전형으로서 가부장적 가족이 성 불평등에 기초하여 형성된 가족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부정함으로써 자기 위치의 정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동거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젠더 평등이며 이 공동체는 이러한 원칙에 합의한 부부의 성애결합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 구성원이 추구하는 이상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서 공평은 동거관계 내에서 평등이 도덕적 규범으로 합당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가리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실행의 성과는 언제나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언제나 이러한 성 평등적 가치추구가 동거의 정당성을 갖게 하지만, 그것은 오직 실천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만 성 평등의 성과를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서구 문명사회에서 성 평등이념은 가족 내에서 가사분담을 통한 성 평등을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개인에게 배태되어 있는 규범이 아니었다. 그 사회의 일부 구성원만이 윤리적인 에토스로 받아들이는 이념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면 근대사회에서 평등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그 동안 당연시 되었던 남녀차별 의식이 공정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사상은 산업화된 사회에 만연해 있으나 가족공동체에서 그 이념의 실천에는 한계가 있었다. 때로는 성 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어느 요소의 불평등을 다른 요소로 환원시키거나 다른 요소의 불평등으로 상쇄시키려고 하는 자기 합리화는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체계로 변질되어 갔다. 특히 '가사분담에서의 공평'의 원리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기 합리화에 의해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성 평등이념이 배태되어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동거생활에서 '가사분담에서 공평'의 원리가 실천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연애과정이나 동거관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성 평등 가치관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실천되는 가는 또 다른 문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성 평등 이념의 투쟁은 소위 전문적인 페미니스트의 의무로 여겨지게 되고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가사분담의 실천'이 부각된다. 결국 성 평등에 기초하고 있는 동거관계의 존재조건은 이 원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가사분담에 있어서 공평'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의해서 성취될 가능성이 높다.

- (가) 가계부양 책임자의 자발적인 가사분담 참여에 의해서
- (나) 배우자 한 쪽의 가사분담 참여의 요구에 부응해서
- (다) 부부 모두 가계부양적 직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합리적 가사분담에 합의하고 그것을 책임으로 여김으로써 자발적이고 공평한 가사분담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성 평등에 기초한 동거관계도 유지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분담의 공평이 어렵게 되고 성 평등 동거는 불안정하게 된다.

- (라) 가계부양자가 가사분담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특히 가계부양의 노동이 가사노동의 대가와 상쇄된다는 생각에서

(마) 전적으로 가사분담을 하는 사람이 가사노동을 가계부양자 노동에 상응하는 것으로 자기 합리화하며 당연시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기성의 결혼제도 자체가 구성원의 행위양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사분담에 있어서 공평'의 원리가 연령질서에 의한 지배관계, 가족의 자원 배분에 따른 권력의 불평등 그리고 성 차별적 역할의 재생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천되는가에 대한 평가를 상대방과의 동거생활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동거생활을 통해 가부장적 가족이념의 영향에 의한 정서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불이익을 겪지 않았다면 기성의 가부장적 가족의 모순이 상대방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인식하게 되고 기성의 결혼제도로 이행하는 것은 순전히 절차상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 경우에는 동거를 혼전에 치르는 예비 결혼이나 시험적인 결혼생활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은 동거를 기성세대의 결혼제도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전통적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 동거를 통해서 성 평등 가치이념이 실천되고 상대방을 배우자로서 적당한 사람으로 평가했을지라도 그것은 기성 가족제도의 모순을 해소한 과정이 아니라 기성 가족이념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은 기성의 결혼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거를 혼전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 평등 동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성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모순을 제거하려 한다. 따라서 동거를 통해 기성 가족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성의 가족제도의 이행여부와 관련시켜 보면 이래와 같은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바) 장차 가부장적 확대가족의 편입으로 인한 문제를 경시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의 동거자들은 동거를 통해 상대방에 투영된 가부장적 가족이념이 갈등의 원인이나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모순이 해결되었다고 인식하고 기성의 결혼제도를 수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사) 가부장적 확대가족의 편입 자체가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인

식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의 동거자들은 동거생활을 통해 상대방과 성 평등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편입되지 않는 것만이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사분담에서 남녀의 공평성에 대한 태도는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을 반영한다.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사분담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2002년 30.7%에서 2012년에는 45.3%로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찬성하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낮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기존의 성 역할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유경외3인, 2013). 실제로 여성은 가부장적 요소가 남아있는 현행 가족제도에 편입될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의 참여, 육아분담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 등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은희, 1998; 변화순, 2001; 이동원 et al., 1998; 김지영, 2005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 처한 개인은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 대해 성찰하게 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또는 기성세대의 결혼형태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은 성 불평등 결혼을 지체하거나 거부하게 되며 새로운 형태의 성 평등에 기초한 결합을 갈구하게 된다. 더구나 기성의 결혼제도를 불안정한 체계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 결혼제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성 불평등에 기초한 가족의 결혼 불안정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혼율의 증가가 결정적이다. 이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개인적으로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그 정당성을 갖게 되면 결혼관계의 해체와 그 후의 재혼은 개인의 생애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연속적인 결혼(serial marriage)은 이혼율이 높은 서양사회에서 일반적이다. 그런데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가족해체가 한쪽 부모의 상실을 가져왔고 물질적 그리고 환경적인 삶의 조건을 열악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 부모의 이혼경험을 겪은 사람은 장차 자신의 결혼도 불안정할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Webster, Orbuch, & House, 1995). 심지어 부모의 이혼경험은 그 자녀에

제도 똑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주장도 있다(Amato & Booth, 1991; Feng, Giarrusso, Bengtson, & Frye, 1999; Wolfgang, 2000). 젊은 성인들이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든지 또는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혼의 고통을 느끼는 경우, 그것을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오는 불안정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가부장적 이념이 남아있는 핵가족제도 자체를 이혼의 원천으로 지목하게 되면 이 제도에 대한 거부는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분노나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부모와 같은 이혼의 아픔을 겪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Manning & Smock, 2005). 이혼과 같은 결혼해체를 관찰하게 되거나 경험함으로써 전통적 결혼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동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Axinn & Thornton, 1993; Bumpass, 1990; Rindfuss & VandenHeuvel, 1990; Smock, 2000; Thornton, 1991; Thornton et al, 1992; Thornton & Young-DeMarco, 2001). 유럽이나 북미처럼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젊은 성인들 중에는 전통적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결혼 이후 결별하는 부부들을 지켜본 젊은이들은 ‘살아보고 결혼하자’ ‘집나서 결혼 못 하겠다’는 신중론과 회의론에 근거해 동거를 시작할 가망성이 있다는 것이다(피주영·조병주, 2008).

IV. 동거 후 가족

1. 동거 후 전통적 결혼으로 이행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생활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Thornton & Young-DeMarco, 2001). 현재는 생애과정, 개인 정체성, 친밀한 관계 그리고 자녀의 출산과 교육 등을 조직하고 조정하는데 있어서 결혼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많이 약해졌지만(Coleman, 1990; Thornton & Fricke, 1987; Thornton & Young-DeMarco, 2001; Axinn & Thornton, 2000 재인용) 여전히 전통적 결혼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대부분 가족연구자들은 인정하고 있다(Edin, 2002; Thornton & Young-DeMarco, 2001; Barlow, Duncan, James, & Park, 2001; Seltzer, 2004 재인용). 서유럽에서 동거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되는 가운데 전통적 결혼제도의 대안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반면에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회에서 동거는 비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확산이 지체된다(Monika Mynarska & Bernardi, 2007). 전통적 또는 기성의 결혼제도의 가치에 대한 평가나 인식은 개인의 신념이나 사회적 성격에 따라 다른 것이다. 특히 전통적 결혼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에서 전통적 결혼이나 가족제도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것 또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비하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전통적 가족제도에 성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즉 기존 가족공동체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사회적 규범으로서 가부장 질서가 규율하고 그것에 속함으로써 공동체 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전통적 가족에 편입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나 자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동거구성원이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전통적 결혼 제도로 옮겨가기가 쉽다.

- (아) 동거생활도 전통적 결혼생활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가족이념을 수용한다고 믿는 경우, 동거는 전통적 결혼의 점이(gradual transition) 형태로서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 (자) 동거생활을 통해서 가부장적 결혼의 불안정을 해소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전통적 결혼으로 이행은 순전히 절차 또는 형식의 문제로 여긴다.
- (차) 기성의 결혼제도의 성 불평등의 존재와 그로 인한 결혼 불안정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것에 편입됨으로써 사회적 지지나 자원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 (아) 조건의 경우는 동거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에서 동거와 결혼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단지 생애의 단계의 하나로 또는 의례절차로 생각하게 된다. (자) 조건의 경우는 동거관계

를 결혼이라는 최종 목표의 전 단계(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로 생각하면 혼전 동거(prelude to marriage) (Bianchi & Casper, 2001; Brown, 2003; Brown & Booth, 1996)로서 동거의 의미, 동거를 통해서 결혼에 적합한 배우자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동거(trial marriage) (Bumpass & Sweet, 1989; Seltzer, 2004), 생활 비용 면에서 결혼보다는 유리하다는 의미에서의 동거 (Clarkberg, 1999; Gibson-Davis, Edin, & McLanahan, 2005; Kalmijn, 2011; Manning & Smock, 2002; Oppenheimer, 2003) 등의 성격을 가진 결합들이 있을 수 있다(Hiekel, Nicole, and Teresa Castro-Martn, 2014 재인용).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동거경험을 통해서 전통적 결혼 제도에서 나타나는 부부갈등, 경제생활 불안정, 성 역할 차이, 가정 폭력, 부모의 이혼 경험으로 인한 상처, 부부외도, 부부 간 지위나 권력의 불일치, 가부장적 신념 같은 문제들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 실험하려고 한다¹⁸⁾. 이런 실험은 연애평정에서 동거로 넘어오면서 기성 결혼제도의 모순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행된다. 이들은 동거생활을 통해 전통적 가족의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동거생활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모순이 내적인 과정을 거쳐 해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동거를 통해 결혼상대자로서 적합성을 실험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전통적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을 탐색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또는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찾기 어렵고 동거는 단지 결혼에 적합한 상대자를 찾기 위한 또는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나 수단에 불과하다. 전통적 결혼에 대한 불안정성을 동거생활을 통해 해소시켰다고 믿게 되면 전통적 결혼으로의 이행은 순전히 형식

18) 다음 사례는 이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용해 본다. “Only if you live together can you get to know this person truly and see whether he or she is the right one for the next stage of your life. Or for the rest of your life.” (Female, 28, cohabiting)(Mynarska & Matysiak, 2010).

의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동거구성원들은 동거를 결혼 전 일시적인 결합으로 인식하게 된다. 영원한 성애결합에 따른 위험성(특히 이혼을 개인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동거를 하게 되면 결혼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것(rent-a-marriage)으로 인식된다(Huang, Smock, Manning, & Bergstrom-Lynch, 2011).

- (차) 조건의 경우 사람들은 동거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경우에 일탈로 여기거나 죄책감을 갖기 쉽고 사회적 지원이나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동거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장미, 2005; 정현숙, 2003).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동거관계를 끝내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기존의 결혼제도로 이행하려는 것은 여성의 결혼제도에 부정적이고 상이한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혜택, 자녀양육지원제도, 사회복지 지원 등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다(Hiekel, Liefbroer, & Poortman, 2012). 임신을 기존의 결혼제도의 고유한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있어서 동거생활 중의 임신은 동거관계의 해체와 동시에 결혼으로 이행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¹⁹⁾. 그러나 전통적 결혼의 구속력과 의무감이 약화된 현실에서 동거 후 전통적 결혼으로 이행이 자녀의 출산과 같은 의무나 강제력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 정서적 친밀성이 견고하지 않다면 그 결합은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가부장적 가치관이 많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임신이나 출산은 정상적인 결혼과 자녀의 출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거에 의한 임신과 출산 비율의 증가는 '부모의 자격은 결혼을 통해서'라는 전통적인 격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그 의미는 희석되고 있다(Seltzer, 2004). 미국에서 1982년에 대략 6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결혼한 부부 이외에서 태어났고 2003년에는 그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캐나다,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같은 북유럽국가에

19) 동거한 지 8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 이대로 동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겼고 순간 앞일을 어떻게 헤쳐서나가야 할지 막막했다.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것, 이참에 결혼하자고 했고 나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여성, 37세, 동거)(최희정, 2003).

서는 약 45% 내지 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전통적 결혼제도는 자녀출산의 가장 일반적인 배경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미혼모의 아이들 중 40%는 동거부부관계에서 태어났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그 비율이 대략 60%가 된다. 캐나다에서는 1997년과 1998년에 그 비율이 69%였다(Bumpass et al 1991; Bumpass & Sweet 1989; Smock, 2000; Cherlin, 2004).

동거에서 결혼으로의 이행은 동거경험에서 일차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상호의존성이 높아져야 하며 부차적으로는 원 가족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압력을 받거나²⁰⁾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촉진될 수 있다.²¹⁾ 그러나 동거를 통해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 동거관계는 종결된다. 젊은 성인의 동거는 친밀감 또는 연애감정이 극에 달하여 시공간을 함께하려는 성적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애 때 품었던 낭만적인 공간 그리고 격정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환상은 동거생활이라는 현

20) 5년 동안 동거를 하고 있는 다음의 사례는(남녀 모두 28세) 양쪽 집안에서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양가의 간섭 없이 둘만의 자유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어서 결혼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거사실이 알려질 경우 결혼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지금 상황이 딱 좋아요. 시집이라는 존재도 없는 거고 우리 집도 친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이 상태가 딱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게 들어오면 더 좋다고 보다는 안 좋은 면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네 집에서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 두 여성들은 현재 동거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가족제도 안으로 편입될 경우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결혼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는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제도 안으로 포섭되어야 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현재의 동거관계를 가능한 한 연장하는 것이지 전통적 결혼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성 평등이념이 존재하지만 동거를 지속할만한 의지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김지영, 2005).

21) “살아볼수록 괜찮아요. 사람도 괜찮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할 만하다 오히려 살아보기를 잘 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친구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는데 인간적으로 사람자체가 크게 달라지겠다 이런 거 별로 없고. 육아가 가장 변수가 큰 거고. 시댁문제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가족문제가 걸리게 되니까. 근데 식구들 또 너무 무난하고. 전혀 터치라는 것 없고 존중해 주고. 부담이나 강요나 경제적 요구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봐야 되요. 형제도 그렇고.” (여성, 34, 동거 2년 차)(김지영, 2005).

실을 통해 재해석된다.²²⁾ 선행했던 동거관계에서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면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또 다른 상대와의 성애결합인 연속적인 동거(serial cohabitation) 가능성을 높인다. 전통적 결혼제도에서 이혼과정은 법적 절차를 수반하는데 비해 동거관계의 해체는 그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거를 전통적 결혼제도보다 쉽게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해체할 수 있는 성애결합으로 여기게 되면 이혼과 같은 전통적 결혼제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험대로서 혼전동거를 더 선호하게 된다. 연속적인 동거(serial cohabitation)는 형식 상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으나 연속적인 동거에 들어가지 않고 독신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동거가 생애과정의 한 단계로 인식되는 사회에서는 전통적 결혼보다 첫 번째 결합이 파경을 맞은 다음 두 번째 결합으로 이어질 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이행속도가 빠르다(Wu & Schimmele, 2005).

동거하는 사람 중에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수단으로서 동거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비전통적 가치인 성 평등규범이 행위자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동거의 시작이 경제목적 또는 생활의 편의성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거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전통적 결혼제도를 취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동거의 동기가 경제문제의 해결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거는 성적인 결합이 동반하며 상호 감정적 몰입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목적으로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감정적 행위가 개입된다. 생활비나 집세와 같은 경제문제는 합리적인 분담에 의해서 조정되고 결정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몰입이나 헌신에 있어서는 합리성보다는 감정이나 정서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22)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 밀가루 반죽을 서로의 코에 묻히며 까르륵대다가 침대로 쓰러지는 나날이 이어질 줄 알았지만 실상은 곰팡이와 초파리, 머리카락과의 전쟁이었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건 애정이 식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였다. 동거 전 집에 보내기 싫다며 달뜬 눈길로 날 응시하던 그는 어느새 나를 소 닭 보듯 하고 있었다. ‘이게 미래의 내 결혼생활인가?’ 생각하면 아찔해졌다.” (여성, 24, 동거 9개월 차)(황수현 et al., 2014).

2.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

동거에서 어떤 특정한 요인을 고려하면 결혼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연구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교육수준이 높으면 동거보다는 결혼을 선호한다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교육수준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되자 연구자들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Esteve, Lesthaeghe, & Lpez-Gay, 2012). 그 후 일부 사회학자들은 선진국에서 전통적 결혼이 감소하고 동거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성 평등(gender equality)사상의 확대와 가치이념에서의 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Esteve et al., 2013; Esteve et al., 2012a; Lesthaeghe, 2010; Lesthaeghe and Surkyn, 2004; Covre-Sussai, Meuleman, Van Bavel, & Matthijs, 2014 재인용).

사람들이 전통적 결혼제도에 성 불평등으로 인한 결혼불안정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면 의식적으로 그것을 배척하게 되고 성 평등적 결합관계를 선호하게 된다. 북미나 유럽에서 전통적 결혼제도는 규범적 가치로서 개인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동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가부장적 권위 하에 놓여있던 이전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었던 결혼관이 이제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개인화된 결혼(individualized marriage)(Cherlin, 2004)이나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Giddens, 1991)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들이다. 결혼에 대한 전통규범이 약화되면서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개념들이다. 계급, 종교 그리고 공동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대신 개인의 감정이나 자아 정체성(self-identity)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20세기에 발생한 결혼제도에 나타난 개인주의의 증가와 동거와 같은 탈 제도화의 개념들과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다(Cherlin, 2004).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 평등 동거관계 구성원은 성 평등에 기초한 성애적 결합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행위자로 규정할 수 있다. 동거를 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집단보다 보통 성 역할에서의 평등(gender equality)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Clarkberg et al., 1995; Davis, Greenstein, & Marks, 2007; Lye & Waldron, 1997; Thornton et al., 1992; Smock, 2000).

1970년대에 동거는 젊은 사람이 단기간에 거치게 되는 과정으로 그 지속 기간이 짧고 결혼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 후반에 북미와 유럽에서 동거와 결혼은 법적인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물론 유럽에 비해 북미에서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지만) (Bumpass & Lu, 2000; Stanley, Whitton, & Markman, 2004; Cherlin, 2004; Rhoades, Stanley, & Markman, 2012). 이러한 규범적 지지는 동거관계의 확산과 일반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적인 동거관계는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적 지지에 의해 촉진될 수 있으며 동거에 대한 새로운 입법과 정책은 동거관계의 정당성을 강화시킨다(Seltzer, 2004). 그리고 부모나 형제가 동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동거관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또래집단의 동거행태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신의 동거관계를 하나의 생애적 절차로 받아들이게 된다(Manning & Smock, 2005). 실제적인 동거관계의 실행에는 다음의 조건들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또한 동거관계를 확산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 (거) 사회적 관계에서의 용인; 부모, 형제, 친척, 또래집단에 의한 인정
- (너) 물질적 기초; 동거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물질 기반
- (더) 규범적 지지; 사회규범, 제도, 종교적 이념 등
- (러) 또래집단의 동거행태의 내재화
- (머) 기존의 가족규범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나 의지; 타인에 의한 기성의 가족규범의 강요나 설득을 무시하는 사람에 의해

이러한 조건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거) 조건의 경우, 동거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성애결합의 하나로 양해될 경우, 전통적 결혼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반대인 경우에는 동거에 대한 성 차별적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성적문란이라는 비난이 남성에게는 가장의 의무로서 생계 부양을 회피하려는 무책임성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사회적 재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족 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면 가족구성원에게 동거사실을 숨기려 할 것이다(김지영, 2005). 사회적 재제가 약한 경우에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며 드러내놓고 비난하지 않으나 가족구성원이 관련되면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염려하게 된다.

(너) 조건의 경우, 동거생활은 결혼생활과 똑같이 물질적 기반을 필요로 한다. 이탈리아 두 지역을 비교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젊은 성인의 동거진입은 직업과 같은 물질 기반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Schrder, 2008).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한 젊은 성인이 물질적으로 혼자 살아가기 힘든 경우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성과의 공간적 동거는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동거를 고려할 때 상대의 경제적 상태들에 대한 -빛이 있는가, 신용불량은 아닌가- 사실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그러하다(P. M. Huang et al., 2011). 남녀의 경제적 독립은 동거생활에 중요한 요소이며 가사분담의 공평을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더) 조건의 경우, 동거에 대한 사회 규범적 용인과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제도화는 동거관계의 확산을 촉진시킨다. 서유럽에서 동거의 증가와 동거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수가 급증하게 되자 1998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많은 나라에서 동거가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Kiernan, 2004).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유럽사회에서 동거는 결혼 허가에 따른 절차적 장벽을 가진 가난한 계급에서 그리고 이념적으로 전통적 결혼에 반대하는 소수집단에서 행해지는 하위문화로 간주되었다. 동거라 함은 주로 이혼 후 동거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지칭되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양상이었다(Kiernan, 2001). 결혼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에서 동거는 일종의 사회적 재제의 대상이 된다. 전통적으로 남아프리카(South Africa)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성은 부모의 집에서 추방되다는 사회적 낙인이 있었고 남성의 경우 신부 값(bridewealth)을 치르지 않으면 종교적인 또는 공식적인 결혼식을 했더라도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관습 때문에 외형적으로 동거는 존재하지 않는다(Posel & Rudwick, 2014). 따라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동거하지 않고 직접 결혼하게 되는 것은 전통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종교의 신념은 동거보다는 전통적 결혼에 가치를 부여한다(Thornton, Axinn, & Hill, 1992). 1960년 대 후반에서 1970년 대 초반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결혼제도는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전통적 결혼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동거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이 시기에 성에 대한 가치나 태도, 젠더 관계, 여성취업 그리고 개인의 역할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다(Lesthaeghe 2010; Van de Kaa 2001). 이와 동시에 국가는 제도 밖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지적 접근과 가족정책적 배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Knijin, Martin, and Millar 2007; Gauthier 1996). 이러한 발전은 결과적으로 동거관계를 더욱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했다(Perelli-Harris & Gassen, 2012).

- (리) 조건의 경우, 개인의 동거에 대한 인식은 같은 또래집단의 동거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친구의 동거경험이나 친족 내 같은 또래의 동거경험이 동거결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동거 후 이혼(divorce) 경험에 있는 친구로부터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동거를 결혼 후 이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인식하기도 한다(Manning, Cohen, & Smock, 2011).

이상의 네 가지 조건은 사회적 관용이나 규제 또는 재제의 정도에 의해서 동거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그리고 (머) 조건은 성 평등 동거관계의 발생과 유지 그리고 지속성에 절대적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지속성을 가진 동거관계’와 같은 의미로서 ‘동거지속공동체(sustainable cohabitation community)’²³⁾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관습적이 아닌 행위자의 의지에 의해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위에서 비롯된 사회적 행위의 독특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은 전통적 결혼을 사회적 통제로 생각하며 이념적으로 결혼을 반대(ideological rejection of marriage)하는 경우의 전형으로 나타난다(Hickel & Castro-Martn, 2014). 동거지속공동체는 그 사회의 결혼제도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23) 동거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적 결합(Vergemeinschaftung)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결혼과 동거를 구분하여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동거지속공동체라는 개념도 유용하다고 본다.

서 실현될 수 있고 그것은 전통적 가족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난다.²⁴⁾ 동거 구성원이 전통적 결혼제도를 수용하는 순간 가부장적 확대가족의 이념에 노출되고 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복종과 종속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러하다.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 즉 동거지속공동체의 형성의 기초는 가계를 위한 경제적 분담은 물론 가사노동과 육아 등 성 역할에서의 평등에 있다. 성 역할 차별성이 재생산되는 가족제도에 대한 부정에 기초한 동거지속공동체가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는 바로 '가사분담에서의 평등' 원칙의 준수 여부이다. 선행연구들에서도 결혼생활 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가사분담을 꼽고 있다(Blair, 1993; Mederer, 1993; Kluwer et al., 1996). 그런데 가부장적 가족이념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제력에 있어서 성별 불평등은 동거지속공동체의 출현을 가져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고, 임금수준에 있어서 성 차별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약화는 가사노동의 분담을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성의 가사분담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남편의 생계부양을 위한 노동의 대가를 등치시키는 여성 자신의 합리화가 개입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도 가족 내에서 경제적 평등을 조건으로 가사분담의 공평을 제기하거나 협상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동거지속공동체의 이상은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그것의 실천원리로서 가사분담에 있어서의 공평이 어떤 내적인 또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시킨다면 경제적 평등은 '가계부양에 있어서 경제적 공평'으로 인식되고 그럴 경우 합리적이다. 만일 남성이 가계운영에 관련된 경제적 지출을 자신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여성의 가사전담에 대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면, 경제적 불공평이 가사노동의 불공평을 합리화하는 상황이 되고 결국 이것은 서양의 산업화시기에 정당화

24) “우리 둘 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싫어했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시댁이나 처가 같은 한국 가족 문화에도 거부감이 컸다. 그녀는 가장이라는 단어를 혐오한다고 말했고 나도 한 여자의 남자라는 위치로 족했다.” (남성, 36, 동거 5년 차)(황수현 et al., 2014)

되었던 부양자 노동의 가사노동과의 맞바꿈이라는 함정에 다시 빠지는 결과가 된다.²⁵⁾ 여성의 가사노동의 대가로 생계부양을 하는 남성의 성별 역할이 정당화된다면 동거지속공동체와 가부장적 가족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서구사회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입은 남성보다 적으며 비 서구사회에서 그 격차는 더욱 크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거지속공동체에서 가계 생활비의 분담은 각자의 수입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가계비 분담에서의 공평'이라 한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생활비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을 공평한 처사로 인식할 가망성이 있는 것이다.²⁶⁾

결론적으로 동거지속공동체라 함은 그 동기가 성 평등적 이념에 있고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한 모순을 동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통적 가족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구성원들이 기성의 결혼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성 평등은 그것에 대한 에토스를 가진 개인이 이념적 투쟁에서가

25) 상대방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돈도 벌었고 자기 집도 있고 가진 게 많은데 저는 가진 게 없는데 하지만 동등한 것을 원하고, 동등하길 원하는 게(경제적 기여가 없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가사분담을 요구한 것을 말함) 이 사람한테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동급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사람하고 연애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나쁘다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 연애관계도 권력관계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김지영, 2005)

26) 다음의 세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돈 관리는 각자 하고 생활비도 각자 하는데 제가 전세 비를 냈으니까 그 친구가 월세조로 한 달에 15만원씩 저한테 주죠. 가스 비는 제 통장에서 나가고 그 친구는 인터넷 비 내고 그래서 비슷해요. 그때 은행에 누가 갔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칼같이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을 보거나 생활비는 그때 돈 있는 사람이 내요. 요즘에 그 친구 벌이가 좋다 보니까 그 친구가 많이 내죠.” (여성, 29, 동거 7년 차)(김지영, 2005)

“나는 내가 벌어서 쓰고 내가 운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데 집도 얻고 생활비도 같이 쓰고 해야 하니까 무 자르듯이 딱 되지는 않아. 서로 일정하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 둘 다 별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자였으면 또 모르지. 일단 같이 생활하니까 생활비 같은 거는 합리적으로 분배를 하지.” (여성, 28, 동거 5년 차)(김지영, 2005)

둘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거부부는 각자의 수입 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하는 여성은 말한다.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버는 수준에 따라 다르죠. 그 친구가 돈을 안 벌 때가 있었어요. 제가 돈을 벌고 그 때는 그 돈으로 생활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이 낸다는 것이 저희 기준이에요.(김지영, 2005).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공평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실천에서 실현될 것이다. 기성의 성 불평등 결혼제도는 이러한 동거지속공동체에 의해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이것도 정상적 제도로 인정되며 성 평등 공동체가 우세하게 된다.

이상에서 언급된 지속성을 가진 동거관계의 의미인 동거지속공동체는 현실세계에 정합적인 것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구성된 이상형이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이 공동체를 찾아보기란 어려울 것이며 다만 이상형으로부터 다양한 편차를 가진 실재로서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 이유로 동거를 하는 공동체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이상형적 요소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사례가 발견될 수 있고 그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상형을 경험세계에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재와 거리가 있을 때 서로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형을 비교기준으로 삼고 실재가 그것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거리는 어떤 이유로 존재하게 되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²⁷⁾. 다시 말하면 현실세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비교의 기준으로서 이상형적 동거지속공동체가 채택되고 이것을 실재와 비교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론이 현실과 정합적일수록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그와 반대로 경험세계와 거리가 멀수록 비교설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형적 이론구성에 대한 시도는 나름 의미가 있다 하겠다.

V. 결론

본 연구는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동거지속공동체의 이상형을 제시하였다. 그것의 존재조건으로서 성 평등 이념의 내재화와 가부장적 가족이념에 대한 부정이라는 두 가지 이념적 결속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이념이 행위자를 움직이게 하는 에토스로서 작용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27) 이상형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순구(1985)를, 이상형이론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송인하(2013) 참조.

행위자가 인식하기 쉬운 것으로서 '가사분담에 있어서 공평'의 원리에 대한 인식과 그 실천에서 찾았다. 다시 말하면 동거지속공동체의 실현은 가치이념에 대한 투쟁에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에서의 가사분담의 실천여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지속성은 공평의 원리가 실천되고 기성의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의도적인 행위에서 나타나게 되며 최종적으로 성 평등 가치실현의 성과는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참여에 의해 달성된다는 것이다. 독특한 현상으로서 동거지속공동체의 존재는 동거현상의 초기에 있는 사회에서 동거의 원형으로 제시되는 효과가 있으며 유럽이나 북미와 같이 동거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상징적인 효과는 물론 기성의 결혼제도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동거지속공동체는 경험세계에서 그 전형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이상형으로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은 다양한 성격을 포함하는 동거관계를 기술하거나 설명하는데 비교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분석도구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인용한 경험적인 사례는 이상형적 이론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했음을 밝힌다. 이상형이 하나의 관점에서 기술한 연구자의 논리적인 사유구성체이기 때문에 경험사례를 채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동거사례는 많지 않지만 장차 동거관계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보면 비교적 지속성을 가진 동거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럽이나 북미의 동거가 일반화되기까지는 고작 30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한국에서 동거가 서구처럼 하나의 생애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 이혼 후 동거와 젊은 성인을 중심으로 한 동거가 존재하고 실제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래의 가족제도 변화가 동거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동거지속공동체의 이상형을 이용한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2012). 단독가구노인의 재산상속의식과 관련요인.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23(2), 145-162.
- 공미혜·구명숙(2001). 혼외관계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Patriarchal Ideology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among Married Women]. 한국여성학, 17(2), 99-127.
- 김기경·박혜인(2001). 도시 가족의 재산·제사상속 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69-281.
- 김나미 외(2012). 한국판 PREPARE 검사의 요인구조 분석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3(2), 1043-1063.
- 김유경 외(2013).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김지영(2005). 동거를 통해 본 성별 관계의 지속과 변형 : 20~30대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 김현식·황선재(2013). 자녀동거가 유산상속 선호형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 사회연구, 33(4), 72-104.
- 김혜경. (2008). 노인의 유산상속과 사회적 지원. 한국노년학, 28(2), 309-323.
- 류성희. (2010). 막스 베버 공순 (恭順) 사상으로 바라본 조선시대 남-여 관계에 대한 인식. 철학사상, 38, 135-172.
- 박소영(2010). 고부관계에서 남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8(0), 151-186.
- 박효근(2012). 여성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사상과 그 사회적 적용. 서양 중세사연구, 30(0), 255-291.
- 백진아. (2001).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주의. 사회발전 연구, 7(단일호), 27-50.
- 백진아. (2007). 한국 기혼여성의 가족 경험-가족주의와 변형적 친밀성의 결합. 담론 201, 10(3), 241-269.
- 백진아(2009).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인식, 33(1· 2), 204-224.

- 변화순외2인(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송인하(2013). 이상형으로서 사회이론의 유용성. 사회와이론, 22.
- 송인하(2014). 귀농행복: 이담.
- 양수진·임춘희(2012). 성인초기 개인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자아분화가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173-198.
- 은기수(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4(4), 241-258.
- 이다해(2014). 명절 뒤 '시월드 스트레스'로 이혼소송 증가.. 법원 판단기준은.
- 이동원·함인희(1992). 도시 중산층 가족: 가족과 계층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가족학논집, 4, 135-156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순구(1985). Max Weber 研究: 한울.
- 이정음·김명자. (2001).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51-165.
- 장경섭(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창비.
- 장미(2005). 한국 청소년의 혼전동거에 대한 고찰. 백석기독교학회 학술 세미나, 45-55.
- 정경희(2013).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인학대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보건복지포럼(200), 51-61.
- 정현숙(2003). 혼전동거 -낭만적 동거에 대한 신화. 레드리본.
-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 최희정(2003). "혼전동거 후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부부& 이별한 사람들의 사연." in 여성동아.
- 피주영·조병주(2008). “결혼은 연습해보면 왜 안되지요?” . 신동아.
- 홍양희(2013). “애비 없는” 자식, 그 '낙인'의 정치학. [The Politics of the “Fatherless Child” Stigma: The Legal Structure of 'Sasaenga' in Colonial Korea]. 아시아여성연구, 52(1), 39-66.

- 황선재 · 김현식(2014). 재산상속대상 결정요인 분석. 한국인구학, 37(1), 81-108.
- 황수현 외(2014). 혼전 동거 젊은 남녀의 속내, 한국일보.
- Amato, P. R., & Booth, A. (1991). Consequences of parental divorce and marital unhappiness for adult well-being. *Social Forces*, 69(3), 895-914.
- Axinn, W. G., & Thornton, A. (1993). Mothers, children, and cohabitation: The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attitudes and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33-246.
- Barlow, A., Duncan, S., James, G., & Park, A.(2001). In A. Park, J. Curtice, K. Thomson, L. Jarvis,& C. Bromley (Eds.), *British social attitudes:Public policy, social ties. The 18th report* (pp.29-57). London: Sage.
- Batalova, J. A., & Cohen, P. N. (2002). Premarital Cohabitation and Housework: Couples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743-755.
- Bianchi, S. M., & Casper, L. M. (2000). *American families* (Vol. 55):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 Rosenkrantz, P. S.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1.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59-78.
- Brown, S. L., & Booth, A. (1996). Cohabitation versus marriage: A comparison of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8-678.
- Brown, S. L. (2004). Moving from cohabitation to marriage: Effects on relationship quality. *Social Science Research*, 33(1), 1-19.
- Brownridge, D. A. (2006). Violence against women post-separa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1(5), 514-530. doi: <http://dx.doi.org/10.1016/j.avb.2006.01.009>
- Bumpass, L. L. (1990). What's happening to the family? Interactions between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change. *Demography*, 27(4), 483-498.
- Bumpass, L. L., & Sweet, J. A. (1989). Children's experience in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s of cohabitation and marital transition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56-260.

- Bumpass LL, Sweet JA, Cherlin A. 1991. The role of cohabitation in declining rates of marriage. *Demography* 53:913-27
- Carlson, A. (2007). The Natural Family Dimly Seen Through Feminist Eyes. *MODERN AGE*, 49(4), 425.
- Casper, L. M., & Bianchi, S. M. (2001).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American family*: Sage Publications.
- Chaudhuri, S., Morash, M., & Yingling, J. (2014). Marriage Migration, Patriarchal Bargains, and Wife Abuse: A Study of South Asia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20(2), 141-161. doi: 10.1177/1077801214521326
- Cherlin, A. J. (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848-861. doi: 10.1111/j.0022-2445.2004.00058.x
- Clarkberg, M. (1999). The price of partnering: The role of economic well-being in young adults' first union experiences. *Social Forces*, 77(3), 945-968.
- Clarkberg, M., Stolzenberg, R. M., & Waite, L. J. (1995). Attitudes, values, and entrance into cohabitational versus marital unions. *Social Forces*, 74(2), 609-632.
- Covre-Sussai, M., Meuleman, B., Van Bavel, J., & Matthijs, K. (2014). Measuring gender equality in family decision making in Latin America: a key towards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configurations. *Genus*, 69(3).
- Davis, S. N., Greenstein, T. N., & Marks, J. P. G. (2007). Effects of union type on division of household labor: Do cohabiting men really perform more house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 Deutsch, F. (1999). *Halving it all: How equally shared parenting works*: Harvard University Press.
- Dutton, D. G. (1994). Patriarchy and wife assault: The ecological fallacy. *Violence and victims*, 9(2), 167-182.
- Eccles, J. S., Jacobs, J. E., & Harold, R. D. (1990). Gender role stereotypes, expectancy effects, and parents' socialization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ocial Issues*, 46(2), 183-201.

- ESTEVE A., LESTHAEGHE R., LÓPEZ-GAY A. (2012), The Latin American Cohabitation Boom, 1970-2007,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March): 55-81.
- ESTEVE A., LÓPEZ-RUIZ L.Á., SPIJKER J. (2013), Disentangling how educational expansion did not increase women's age at union formation in Latin America from 1970 to 2000, *Demographic Research*, 28(January): 63-76.
- Elizabeth, V. (1997). Something old. Something borrowed. Something new.: Heterosexual cohabitation as marriage resistance? A feminist deconstruction.
- Esteve, A., Lesthaeghe, R., & Lopez-Gay, A. (2012). The Latin American cohabitation boom, 1970-2007.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1), 55-81.
- Feng, D., Giarrusso, R., Bengtson, V. L., & Frye, N. (199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Quality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451-463. doi: 10.2307/353761
- Ferree, M. M. (1990). Beyond separate spheres: feminism and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4), 866-884.
-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751-767.
- Gallin, R. (1994). The intersection of class and age: Mother-in-law/daughter-in-law relations in rural Taiwan.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9(2), 127-140. doi: 10.1007/bf00972145
- Gauthier, A. H. (2007).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6(3), 323-346.
- Gibson-Davis, C. M., Edin, K., & McLanahan, S. (2005). High hopes but even higher expectations: The retreat from marriage among low-incom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5), 1301-1312.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 Gilmartin, C. (1990). Violence against women in contemporary China. In J. Lipman & S. Harrell (Eds.), *Violence in China: Essays in culture and subculture* (pp. 203—226).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reenstein, Theodore N. (1996).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585-95.
- Haj-Yahia, M. M. (2003). Beliefs about wife beating among Arab men from Israel: The influence of their patriarchal ideolog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4), 193-206.
- Heuveline, P., & Timberlake, J. M. (2004). The Role of Cohabitation in Family Formation: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214-1230. doi: 10.2307/3600335
- Hiekel, N., & Castro-Martin, T. (2014). Grasping the Diversity of Cohabitation: Fertility Intentions Among Cohabitors Across Europ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3), 489-505. doi: 10.1111/jomf.12112
- Hiekel, N., Liefbroer, A. C., & Poortman, A.-R. (2014). Understanding Diversity in the Meaning of Cohabitation Across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20.
- Honig, E., & Hershatter, G. (1988). Violence against women. In E. Honig (Ed.), *Personal voice: Chinese women in the 1980's* (pp. 273—307).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uang, P. M., Smock, P. J., Manning, W. D., & Bergstrom-Lynch, C. A. (2011). He Says, She Says: Gender and Cohabit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32(7), 876-905. doi: 10.1177/0192513x10397601
- Huang, W.-J. (2005). An Asian Perspective on Relationship and Marriage Education. *Family Process*, 44(2), 161-173. doi: 10.1111/j.1545-5300.2005.00051.x
- Hunnicut, G. (2009). Varieties of patriarchy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surrecting "patriarchy" as a theoretical tool. *Violence against women*.
- John, D., & Shelton, B. A. (1997). The production of gender among Black and White women and men: The case of household labor. *Sex roles*, 36(3-4), 171-193.

- Kalmijn, M. (2011). The influence of men's income and employment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Testing Oppenheimer's theory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27(3), 269-293.
- Kiernan, K. (2001). The rise of cohabitation and childbearing outside marriage in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15(1), 1-21.
- Kiernan, K. (2004). Unmarried cohabitation and parenthood in Britain and Europe. *Law & Policy*, 26(1), 33-55.
- Kluwer, E. S., Heesink, J. A., & Van de Vliert, E. (1996). Marital conflict about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paid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958-969.
- Knijn, T., Martin, C., & Millar, J. (2007). Activation as a common framework for social policies towards lone parent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1(6), 638-652.
- Le Bourdais, C., & Lapierre-Adamcyk, E. (2004). Changes in conjugal life in Canada: Is cohabitation progressively replacing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929-942.
- Lee, M. Y., & Mjelde-Mossey, L. (2004). Cultural dissonance among generations: A solution-focused-focused approach with east asian eld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0(4), 497-513. doi: 10.1111/j.1752-0606.2004.tb01258.x
-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LESTHAEGHE R., SURKYN J. (2004),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1): 1-45.
- Lin, C.-j. (2005). "Modern" Daughters-In-Law in Colonial Taiwanese Families. *Journal of Family History*, 30(2), 191-209. doi: 10.1177/0363199004270786
- Lye, Diane N, and Ingrid Waldron. 1998. "Relationships of substance use to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family and cohabitation." *Journal of substance abuse* 10(2):185-98.

- Manning, W. D., Cohen, J. A., & Smock, P. J. (2011). The Role of Romantic Partners, Family, and Peer Networks in Dating Couples' Views About Cohabit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6(1), 115-149. doi: 10.1177/0743558410376833
- Manning, W. D., & Smock, P. J. (2005). Measuring and Modeling Cohabitation: New Perspectives From Qualitative Dat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4), 989-1002. doi: 10.1111/j.1741-3737.2005.00189.x
- Manstead, A. S., & McCulloch, C. (1981). Sex-role stereotyping in British television advertisem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3), 171-180.
- Mederer, H. J. (1993). Division of labor in two-earner homes: Task accomplishment versus household management as critical variables in perceptions about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33-145.
- Millett, K. (2000). *Sexual politic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onika Mynarska, & Bernardi, L. (2007). "Meanings and Attitudes Attached to Cohabitation in Poland." Germany: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 Možný, I. and Rabušic, L., 1999. 'The Czech family, the marriage market, and the reproductive climate', in J. Vecerník and P. Matějů (eds), *Ten Years of Rebuilding Capitalism: Czech Society after 1989*. Academia, Prague
- Mynarska, M., & Matysiak, A. (2010). Diffusion of cohabitation in Poland. *Studia Demograficzne*, 157(12), 11-25.
- Ogland, Emmanuelle G, Xiaohe Xu, John P Bartkowski, and Curtis P Ogland. 2014.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Married Women in Uganda. *Journal of Family Violence*:1-11.
- Oppenheimer, V. K. (2003). Cohabiting and marriage during young men's career-development process. *Demography*, 40(1), 127-149.
- Perelli-Harris, B., & Gassen, N. S. (2012). How similar are cohabitation and marriage? Legal approaches to cohabitation across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3), 435-467.

- Posel, D., & Rudwick, S. (2014). Ukukupita (Cohabiting): Socio-Cultural Constraints in Urban Zulu Society.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49(3), 282-297. doi: 10.1177/0021909613485705
- Rhoades, G. K., Stanley, S. M., & Markman, H. J. (2012). The impact of the transition to cohabitation on relationship functioning: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finding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3), 348.
- Rindfuss, R. R., & VandenHeuvel, A. (1990). Cohabitation: A precursor to marriage or an alternative to being singl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703-726.
- Risman, B. J., & Johnson-Sumerford, D. (1998). Doing it fairly: A study of postgender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3-40.
- Sassler, S. (2004).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Cohabiting Un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491-505. doi: 10.1111/j.1741-3737.2004.00033.x
- Schober, P. S. (2013). Gender equality and outsourcing of domestic work, childbearing, and relationship stability among British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34(1), 25-52.
- Schröder, Christin. 2008. Economic insecurity and cohabitation strategies in Italy. Pp. 9-12 in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 Seltzer, J. A. (2004).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Demography, kinship, and the futu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921-928. doi: 10.1111/j.0022-2445.2004.00062.x
- Smith, M. D. (1990). Patriarchal ideology and wife beating: A test of a feminist hypothesis. *Violence and victims*, 5(4), 257-273.
- Smock, P. J. (2000).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appraisal of research themes, findings, and im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0.
- Smock, P. J. (2004). The wax and wane of marriage: Prospects for marriage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966-973. doi: 10.1111/j.0022-2445.2004.00066.x
- Sobotka, T., Zeman, K., & Kantorová, V. (2003). Demographic shifts in the Czech Republic after 1989: A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view.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19(3), 249-277.

- Stanley, S. M., & Markman, H. J. (1992). Assessing commitment in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5-608.
- Stanley, S. M., Whitton, S. W., & Markman, H. J. (2004). Maybe i do interpersonal commitment and premarital or nonmarital cohabit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5(4), 496-519.
- Sugarman, D. B., & Frankel, S. L. (1996). Patriarchal ideology and wife-assaul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family violence*, 11(1), 13-40.
- Suzuki, T. (2003). Lowest-low fertility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59(3), 1-16.
- Sweet, J. A., & Bumpass, L. L. (1992). *Disruption of marital and cohabitation relationships: A social demographic perspective*: Springer.
- Tang, C. S.-K. (1999). Marital Power and Aggression in a Community Sample of Hong Kong Chinese Famil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6), 586-602. doi: 10.1177/088626099014006002
- Tang, C. S.-K., & Lai, B. P.-Y. (2008). A review of empirical literature on the prevalence and risk markers of male-on-female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contemporary China, 19872006.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1), 10-28. doi: <http://dx.doi.org/10.1016/j.avb.2007.06.001>
- Thornton, A., Axinn, W. G., & Hill, D. H. (1992). Reciprocal effects of religiosity, cohabitation, and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8-651.
- Thornton, A., & Freedman, D. (1979). Changes in the sex role attitudes of women, 1962-1977: Evidence from a panel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31-842.
- Thornton, A., & Young-DeMarco, L. (2001). Four Decades of Trends in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The 1960s Through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1009-1037. doi: 10.1111/j.1741-3737.2001.01009.x
- Van de Kaa, D. J. (2001). 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 from changing value orientation to new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0-331.

- Vera-Sanso, P. (1999). Dominant Daughters-in-Law and Submissive Mothers-in-Law? Cooperation and Conflict in South India.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5(4), 577-593. doi: 10.2307/2661149
- Weber, M. (2006). 경제와 사회 1 (박성환, Trans.): 문학과지성사.
- Weber, M. (201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Trans.): 길.
- Webster, P. S., Orbuch, T. L., & House, J. S. (1995). Effects of Childhood Family Background on Adult Marital Quality and Perceived 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2), 404-432. doi: 10.2307/2782433
- Wilcox, W. B., & Nock, S. L. (2006).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Equality, equity, commitment and women's marital quality. *Social Forces*, 84(3), 1321-1345.
- Wolfgang, Nicholas H. (2000). Beyo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vorce: Do People Replicate the Patterns of Marital Instability They Grew Up With? *Journal of Family Issues*, 21(8), 1061-1086. doi: 10.1177/019251300021008006
- Wu, Z., & Schimmele, C. M. (2005). Repartnering after first union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27-36.

Abstract

The theoretical construction of Ideal Type for the formation of sustainable cohabitation in cohabiting couple.

In-ha Song, Choon-hee 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reasons and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of sustainable cohabitation in cohabiting couple. The author has an idea from being gender inequality in spite of developed countries where people take for granted gender equity as human equality. While gender equity was widespread notion worldwide it is not an ethos which dominates agents. Now the ethos of gender equity is revealed by few sustainable cohabitation agen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ender equality cohabitation community was established by instability of traditional marriage and sustainable cohabitation relationships based on gender equality itself would be achieved from daily life such as domestic labor equity and rejection to traditional marriage. The concept of sustainable cohabitation was used as an Ideal Type which could be analyzed or explained reality of cohabitation.

Keywords ; cohabitation union, gender equality, gender role, domestic labor, Ideal Type